

“기대에 미치지 못한 제시안이다”

5차 중앙교섭 열어 ... 사측, 통일요구 한 개 제시안 제출, 금속 최임 등 제시 못해

금속노조와 금속산업 사용자협의회가 5월 10일 대구에서 5차 중앙교섭을 열었다. 사용자협의회가 1차 제시안을 냈으나, 노조는 요구에 미치지 못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근형 사용자협의회 회장 직무대행은 교섭 인사말에서 “세계 경제에서 물가가 폭등한다는 표현이 맞을 정도의 상황이다. 금속 최저임금 등 요구안에 대해 상당히 고민스러운 지점이 많다” 라고 밝혔다.

박근형 회장 직무대행은 “지난 주에 제시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지만, 한정된 시간에 회원사의 의견을 다 담지 못했다” 라며 “63개 회원사 의견을 담기에 부족하지만, 노사 교섭은 끝이 있는 협상이기에 최선을 다해 안을 준비했다” 라고 설명했다.

윤장혁 금속노조 위원장은 교섭을 시작하며 “오늘 중앙교섭에 앞서 윤석열 취임식 시간에 현대자동차지부 교섭 상견례를 했다” 라며 “현대차 사측에 지부교섭이 부품

사와 연동해 있으므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교섭을 하자고 요구했다” 라고 밝혔다.

윤장혁 노조 위원장은 “경총이 최근 윤석열 정부 등장을 앞두고 금속노조를 공격해달라는 의견을 공개 발표했다” 라면서 “노조는 노사관계 악화를 굉장히 우려한다. 사측은 신중하게 대처해달라” 라고 요청했다.

사용자협의회는 이날 교섭에서 노조 통일요구 중 금속산별협약 57조(산업전환대응) 5항 신설 ‘회사는 산업전환 대응 과정에서 정부와 지자체의 각종 지원제도를 활용하고자 할 경우 일방적으로 추진하지 않으며 사전에 조합과 합의한다’에 관한 제시안을 내놨다.

사용자협의회는 ‘회사는 산업전환 대응 과정에서 정부 및 지자체의 각종 지원제도를 활용하고자 할 경우 조합과 함께 검토하고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한다’ 라는 안을 던졌다.

사용자협의회는 두 번째 통일요구 ‘금속 산별협약 31조(위험성 평가) 전부 개정, 신설’, 첫 번째 중앙교섭 요구 ‘금속산업 최저임금을 통상시급 10,250원과 월 통상임금 2,316,500원 중 높은 금액으로 적용, 적용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두 번째 중앙교섭 요구 ‘금속산별협약 42조(비정규직 노동자의 조합활동 및 고용보장) 개정, 신설’ 등에 관한 제시안은 회원사 의견 수렴 중이라며 내놓지 않았다.

박근형 협의회 회장 직무대행은 제시안에 대해 “통일요구안 중에 산업전환협약은 사용자 역시 같은 지점을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시각은 조금 다를 수 있다” 라며 “지난해 합의한 문구 ‘조합과

함께 검토하고 수립' 해서가 의미 상 올해 조합 요구와 큰 차이가 없다는 생각으로 제시안을 준비했다" 라고 설명했다.

박근형 직대는 위험성 평가 요구안은 회원사들이 굉장히 많은 의견을 제시했고, 금속 최저임금은 의견을 수렴해 시간을 두고 제시하고, 비정규직 관련 요구는 검토를 시작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윤장혁 노조 위원장은 사측 제시안에 대해 "사측 안이 기대에 상당히 미치지 못한다. 지난해 문구는 합의와 같은 수준에서 정리한 것이다" 라면서 "올해 요구 핵심은 노사합의인데 이게 빠진 안이다. 노동조합이 수용할 수 있는 안을 제출해 달라" 라고 당부했다.

김상민 노조 정책실장은 사측 제시안의 '노력한다' 라는 문구가 조합과 함께 검토하는 것도 노력한다는 뜻이 있는지 질문했다

박근형 회장 직무대행은 "노사가 합의해서 지원금을 신청해도 정부가 무조건 주는 게 아니다. 노사가 최대한 노력해서 지원금을 받도록 하자는 의미다. 검토도 노력한다는 측면은 아니다" 라고 답했다.

엄교수 노조 사무처장은 "정부·지자체 지원제도는 고용 관련 내용이 많다. 사측이 부품 단종, 사업축소, 전업하는데 조합과 검토만 하고 지원 받으면 조합원들이 수용하기 힘들다" 라며 "사측이 노조와 합의하지 않고, 논의한 내용을 검토 과정을 거쳤다면 지원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라고 우려했다.

박근형 사용자협의회장 직무대행은 "금속노사는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협상을 하고 있다. 사측은 합의하면 이행 책임이 있다. 문구 하나까지 사측 입장에서 고민스러운 건 사실이다" 라고 전제했다.

박근형 직무대행은 "금속산별협약에 '합의' 에 관한 내용이 많이 있다. '합의' 문구가 걸치는 부분이 어디까지인지 해석에 고민 중이다. 지난해 합의한 '조합과 함께 대응 계획을 수립, 실행하고' 라는 문구가 이미 상당 부분 합의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라고 주장했다.

박근형 직무대행은 "사용자협의회가 조합과 합의 자체를 부정하는 건 아니다. 의미상으로 보면 지난해 합의의 후속으로서 조합과 함께 검토, 수립, 실행한다는 의미를 그대로 담고 있다. 문구는 좀 더 고민하겠다" 라고 답변했다.

윤장혁 노조 위원장은 "협약 각론 문구 해석이 다르면 이견이 생긴다. 협약은 상호 신뢰가 바탕이다. 협약 전문의 정신을 생각한다면 노동조합 요구를 그대로 수용해도 크게 문제가 없을 듯하다" 라고 의견을 밝혔다.

윤장혁 위원장은 "고용 조정 등을 포함한 지원에 어떤 내용을 담을지 잘 모르기 때문에 조합은 우려할 수밖에 없다" 라면서 "산업 전환 대응에 좋은 제도를 회사가 필요로 했을 때 노동조합이 합의 안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노조 요구가 그렇게 부담스러운 요구는 아

니다. 다음 교섭에서 시원하게 매듭 지었으면 한다" 라고 요청했다.

금속노사 대표가 5차 교섭 마무리 발언에 나섰다.

윤장혁 노조 위원장은 "사업장별 교섭 중인데 사측이 경제가 어렵고 물가가 폭등하기 때문에 노조 요구를 억제하라는 식의 얘기를 한다" 라며 "사측보다 노동자들이 더 힘든 상황으로 가고 있다. 사측이 그런 얘기를 계속해서 교섭이 어려워지지 않았으면 한다" 라고 당부했다. 윤 위원장은 부족한 측면이 있지만 사측이 제시안을 제출해줘서 긍정 평가를 한다고 밝혔다.

박근형 사용자협의회 회장 직무대행은 "조합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통일요구안의 첫 번째 안을 준비했다" 라면서 "사용자협의회 통일요구 제시안은 노사관계에 앞장선 협의회 회원사들을 위한 안이라기보다, 이 테이블에 없는 완성차, 노사 공동위에 참여하지 않는 약 50개 미참여 사들에게 중앙교섭에 이런 안을 냈을 때 당신들은 나올 거냐는 의미로 먼저 던진 안이다" 라고 설명했다.

박근형 직무대행은 "우리가 준비한 내용을 조금 평가 절하하는 것 같아서 아쉽다" 라며 "오늘 이후 완성차 등 통일요구안을 받은 다른 단위가 더 적극적으로 사용자협의회가 고민하는 만큼 고민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의견을 밝혔다.

금속노조와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는 5월 17일 울산에서 6차 중앙교섭을 연다.